외대학보

개강호

HUFS PR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70호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발행인 박정운 /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 편집장 장래산

hufspress.net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기획] 》 3면
우리학교 여성전용수업

[심층] 》 7면
청년창업지원제도의 실태

[사회] 》 8면
수면 위로 떠오른 반지하 정책

[인물] 》 12면
'션티' 이서현 영어강사를 만나다

폭우로 되돌아보는 양캠퍼스 수방시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선

이번 달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도 폭우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우리학교의 피해 상황△양캠퍼스 수방 시설 점검△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글 · 사진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우리학교, 도봉구·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교육 과정 업무 협약 체결해

지난 12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대외협력처는 도봉구청에서 도봉구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 인증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기구△대학교△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연합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협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은 우리학교 학생에게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활동 제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설캠에 지속가능발전교육 강의가 개설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교육 과목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경험 인증제 선수과목으로 각 학기당 3학점으로 구성된다. 1학기엔 'ESD 101'과목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 후 현장 교육을 진행한다. 2학기엔 'ESD 201'수업에서 학생들이 직접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1학기와 2학기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모두 수강한 학생에게 △도봉구청장△우리학교 총장△유네스코한국위원회 총장의 직인이 새겨진 이수증이 지급된다.

이번 업무 협약엔 △김용련 우리학교 설캠 사범대학 교수(이하 김 교수)△박정운 우리학교 총장△설캠 대외협력처△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대학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학교처럼 국제기구 및 지자체와 협력해 교육을 시도하는 사례는 최초다"며 "새로운 경험 인증제 교육에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무 협약에 참여한 천지영(사범·영교 16) 씨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이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의 참여를 통해서도 이뤄질 수 있단 걸 알게 됐다"며 "앞으로 우리학교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 이와 관련된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강새운(사범·영교 16) 씨는 "학생들이 학교 활동을 병행하며 업무 협약과 같은 외부 활동을 할 기회가 적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개설될 수업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에 의하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은 추후 우리학교 융합전공으로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높을 시 이를 우리학교 대학원 전공으로 개설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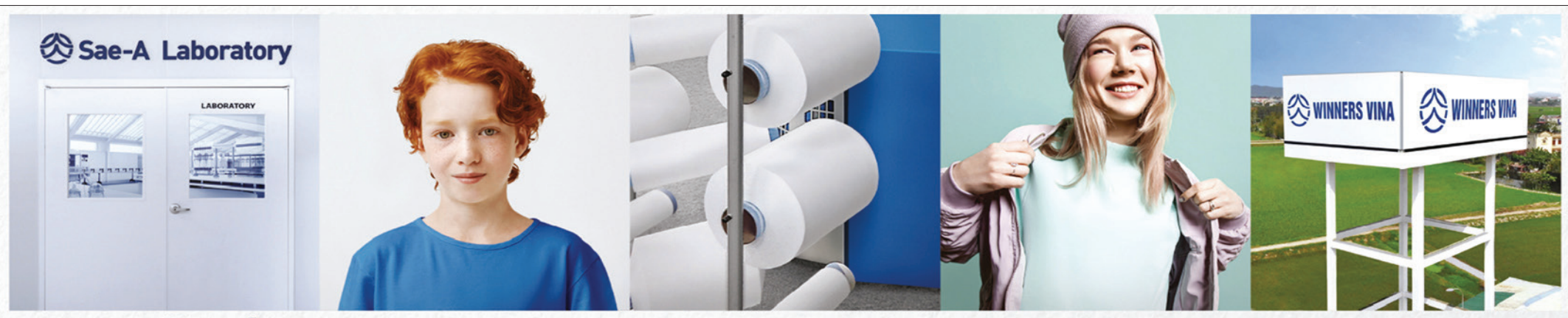
나리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HIMUN), 제46차 모의유엔총회 개최해

지난 13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글로벌 보건 안보를 주제로 제46차 모의유엔총회가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이번 총회는 유엔의 공식 언어인 △러시아어△스페인어△아랍어△영어△중국어△프랑스어△한국어 총 7개 언어로 통역됐다. 제46차 총회의 의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보건 안보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다자협력 모색'이었다. 이수민(아시아·이란어 18)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 사무총장(이하 이 총장)은 주제 선정 이유에 대해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보건 문제는 세계 △경제△사회△정치 전반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단순히 건강을 넘어서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러스는 국경을 넘어선 문제이므로 범국가적인 대응체계의 마련 역시 필수적이다"고 답했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위원회 회의△Action phase△폐회식의 순서로 진행돼 의제를 소개한 후 각 국가의 입장을 발언한 뒤 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번 총회에서 프랑스어 통역을 맡은 박혜린(일본·융일지 19) 씨는 "번역 대본을 읽는 도중 실수하는 등 긴장된 상황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사고에 대처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한편 "통역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는 참가 소감을 전했다.

한편 모의국제연합 HUFS International Model United Nations(HIMUN)는 '국제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위한 △자유△평등△박애'란 국제연합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1958년 창설돼 매해 공개 모의유엔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총장은 "모의유엔총회 개최를 통해 당해 의제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키고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대학생의 시선에서 논의한 후 합의점 도출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정원준 기자 05wonjun@hufs.ac.kr



내일을 희망으로 만드는 기술

우리 모두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전세계에 친환경 설비를 갖춘 공장을 짓는 세아상역-

친환경 설비와 공정을 통한 ESG경영으로
세아상역이 더 좋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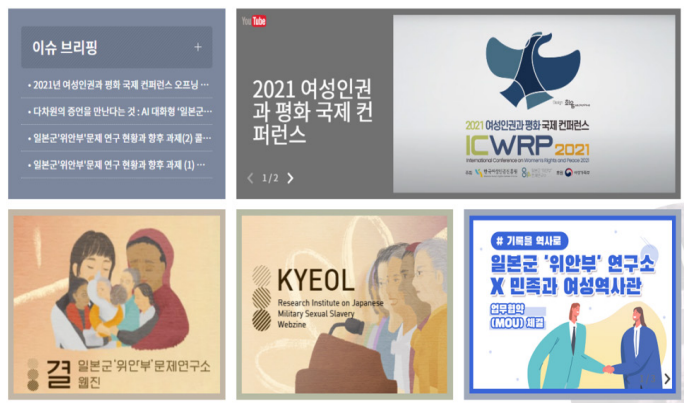
글로벌 No.1 섬유의류 수출 기업
SAE-A TRADING

GLOBAL SAE-A

우리학교 특교원, 2021년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컨퍼런스 개최 영상 자막 지원해

지난 14일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이하 특교원)은 지난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한 '2021년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컨퍼런스'의 개최 영상의 자막을 번역해 공개했다. 이 활동은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사실과 관련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행사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은 지난 행사의 개최 영상에 특수외국어 자막 번역을 지원했다. 개최 영상은 '2021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정의와 평화의 물결을 이끌다'란 제목으로 상영됐다. 번역에 참여한 우리학교 학생과 교수진은 △국제컨퍼런스 참여자 이름△위안부 사건 관련 내용△2000년 도쿄여성법정 최종판결문을 번역했다. 이번 활동엔 △몽골어과△인도어과△태국어과△포르투갈어과△페르시아어·이란학과△폴란드어과△헝가리어과로 이뤄진 총 7개 학과의 학생 33명과 교수진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언어 교수진의 감수를 받으며 총 5차에 걸쳐 번역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번역물은 국내외에 존재하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누리집인 '아카이브814'에 게시됐다.



▲2021년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컨퍼런스 (출처: 우리학교 특교원)

이은구 우리학교 특교원 원장은 "이번 사업은 참여 학생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여성인권 의식 함양△전공어학 역량 향상에 이바지했단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학생과 교수진이 함께 참여한 우리나라 역사 번역물이란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학교의 강점인 외국어 역량이 이번 활동에 활용됐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오갔다. 번역 감수를 담당한 홍인자 우리학교 페르시아어·이란학과 교수는 "우리학교 학생들의 재능이 위안부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자랑스럽다"며 "공공분야에서 특수외국어를 번역한 이번 활동이 이후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역시 보람을 느꼈단 소감을 밝혔다. 번역에 참여한 양현웅(동유럽·폴란드어 18) 씨는 "내용에 전문적인 어휘가 많아 번역이 어려웠다"며 활동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밝히는 한편 "전공 언어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외국에 알린 데에 큰 성취감과 보람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학교 특교원은 다양한 협력 기관에 16개의 특수외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 특교원은 지난 3일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과 특수외국어 교육 및 보급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을 통해 특교원은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 16개 특수외국어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리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우리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HUFS Peer Academy 운영해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우리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이 주관한 학생 교류 프로그램 'HUFS Peer Academy'(이하 피어 아카데미)가 진행됐다. 우리학교 양 캠퍼스 재학생 및 휴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피어 아카데미는 우리나라 학생 35명과 해외 학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학교 교육혁신원과 국제교류처의 후원을 받았다.

피어 아카데미는 미네르바교양대학이 자체 계획한 일정에 따라 활동하는 방식으로 12일간 6차시에 걸쳐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경복궁 관람△국제에티켓 강연△대사관 방문△뮤지컬 관람△음악 공연△전쟁기념관 관람△한글박물관 관람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재학생들은 일정 당일마다 약 6시간 동안 활동했다. 모든 일정이 종료된 후엔 이수자를 대상으로 피어 아카데미 수료증이 발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학우들과 교류할 수 있단 점에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피어 아카데미에 참여한 유돈형(자연·통계 19) 씨는 "학교생활을 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친구를 사귀지 못해 아쉬웠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외국인 친구와 소통하고 친해질 수 있어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우리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가정준 교수(이하 가 교수)도 본 행사에 대해 "학생들이 상호 간 만남과 소통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정립했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학교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학우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과 친분을 쌓을 기회가 적었다"며 "이번 피어 아카데미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학우와 어울릴 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프로그램의 의의를 밝혔다.

▲HUFS Peer Academy 진행 모습 (출처: 우리학교 홍보실)

피어 아카데미는 학우 간 교류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해외 학생들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유돈형 씨는 "6·25 전쟁의 잊을 수 없는 역사를 위해 다양한 국적의 학우와 함께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게 매우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유채원(서양어·포르투갈어 22) 씨는 "팀원들과 함께 전시와 공연을 관람하고 한국 고궁과 관련된 역사 지식을 공유한 활동이 뜻깊었다"고 밝혔다.

한편 프로그램 진행 방식에 대해 아쉬운 점도 지적됐다. 유채원 씨는 "우리나라 학생 수에 비해 외국 학생의 수가 현저히 적어 충분한 소통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다"며 "다음 해엔 시기를 조정하는 등 다른 나라 학생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의견을 제시했다.

정원준 기자 05wonjun@hufs.ac.kr

주식회사 이더랩, 우리학교와 산학협력교육 협약 체결해

지난 12일 우리학교는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사인 '주식회사 이더랩'(이하 이더랩)과 산학협력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학교와 이더랩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장 중심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업의 요구와 수요를 반영한 산학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더랩은 해당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습△전문가 멘토링△프로젝트 수행과정△현장체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험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대해 임민재 이더랩 관계자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과 과정 협업을 통해 최근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협약의 방향성을 나타냈다. 우리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선 "글로벌 인재 양성에 특화된 우리학교가 프로그램 개설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새로운 강의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장준영(글로벌스포츠 22)씨는 "해당 수업 과정을 통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역량을 기를 수 있어 기대가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강의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신한서(국제지역·브라질 22) 씨는 "이더랩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기에 이번 협약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다"며 또한 "협약 체결로 신설될 수업의 학점과 성적 부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번 해 우리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사례는 이더랩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우리학교는 디지털 콘텐츠 플래닝 그룹 '플래니어'와 현장실습 인턴십 사업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김현숙 우리학교 진로취업센터 팀장은 "협약 이후 플래니어의 현장실습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산학 간 협약 체결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이민희(경영·경영 21) 씨는 "직접 산업 현장을 경험해볼 수 있단 점에 매력을 느껴 수강해보고 싶다"고 개설 예정인 산학 수업에 대한 참여 의지를 드러냈다.

정원준 기자 05wonjun@hufs.ac.kr

우리학교 재학생, '2022 한-아랍 그림책 번역대회' 우리나라 부문 1위 수상해

지난 18일 한국-아랍 소사이어티와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KBBY)가 주최하고 외교부와 에쓰-오일(S-OIL) 과학문화재단이 후원한 '2022 한-아랍 그림책 번역대회'에서 우리학교 아랍어과 장창진(아시아·아랍어 16) 씨(이하 장 씨)가 우리나라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이 대회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문학의 세계화△양 문화권 그림책의 상호이해와 교류△양 문화권 행사의 지속적 발전을 목표로 진행됐다.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된 이번 대회는 △아랍에미리트△요르단△우리나라△이집트의 아랍어 및 한국어 전공자 256명이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참가 신청△번역물 제출△심사 완료△온라인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 부문에선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제공된 책 중 한 작품을 골라 아랍어로 번역한 뒤 심사 기준에 따라 총 6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번역 대상엔 △'가끔씩 나는'△'나의 아버지'△'달집 태우기'△'책이 된 선비 이덕무' 등 총 10개의 우리나라 그림책이 선정됐다. 장 씨는 '책이 된 선비 이덕무'를 번역해 우리학교를 비롯해 우리나라 부문에 참가한 △단국대학교△명지대학교△부산외국어대학교△조선대학교의 아랍어과 학생 참가자 중 1위를 차지했다. 장 씨는 "이번 대회에서 수상하게 돼 굉장히 자랑스럽다"며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배경으론 우리학교 학생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는 아랍어과 교수님의 노고가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윤은경 우리학교 아랍어과 교수는 "이번 대회에서 우리학교 아랍어과 학생이 국내 부문 1위에 입상했단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2022 한-아랍 그림책 번역대회는 이번 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 이외에도 이번 해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는 지난 6월 '한-멕시코 그림책 번역대회'와 지난 5월 '한-베트남 문화교류: 한국 그림책 전시'를 진행했다.

나리나 기자 04rinaisme@hufs.ac.kr

2022년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au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2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 · 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17 ~ 02.23	03.20	04.08	04.22
2회	04.28 ~ 05.04	05.29	06.17	07.01
3회	08.04 ~ 08.10	09.04	09.23	10.07
4회	10.06 ~ 10.12	11.06	11.25	12.09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 제한없음

3. **평가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http://license.korcham.net

5. **응시료** : 듣기·읽기 42,000원, 말하기 70,000원, 쓰기 70,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수험료 환불규정 :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http://license.korcham.net (문의) 02-2102-3600
▶ 성적유효기간 :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여성 전용 강의에 엇갈리는 목소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강의를 위해선

현재 우리학교엔 여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가 개설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의 중 △'여대생커리어개발'△'여학생취업실전전략'△'여성호신술'은 남학생의 수강이 제한돼 있는 상태다. 이에 지난달 31일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엔 성별에 따른 수강 자격의 정당성을 논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선 여성 전용 강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우리학교 내 여성 전용 수업 개설 현황△학생들의 인식△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내 특정 성별 전용 수업 개설 현황

우리학교엔 여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강의가 개설돼 있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엔 △'여대생커리어개발'△'여성과사회'△'여성호신술'△'한국여성사'가 있으며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경우도 △'여학생취업실전전략'△'여성과사회'△'여성호신술'△'한국여성사'로 구성돼 있다. 미래시뮬레이션 분야의 강의인 설캠의 여대생커리어개발과 글캠의 여학생취업실전전략은 사실상 같은 강의로 양 캠퍼스(이하 양캠)엔 동일한 내용의 여성 주제 강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여성 주제 강의 중 여성과사회와 한국여성사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수강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대생커리어개발△여학생취업실전전략△여성호신술은 여학생만 수강할 수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 에타 설캠 자유게시판엔 성별에 따라 수강 신청이 제한되는 강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논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여학생을 위한 강의가 존재하는 반면 남학생을 위한 강의는 존재하지 않는 점에 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설캠의 여대생커리어개발과 글캠의 여대생취업실전전략은 지난 2013년 2학기 개설돼 현재 10년 째 운영되고 있다. 두 강의는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여대생특화취업지원'에 따라 여대생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고자 신설됐다. 당시 우리나라 취업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입지가 좁단 인식을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시행한 '우리학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졸업 비율이 각각 47.5%, 52.5%로 여학생의 졸업 비율이 약 5%p 높은 데 비해 남학생과 여학생의 취업률은 각각 63.3%와 58.4%로 여학생의 취업률이 약 5%p 낮다. 이처럼 우리학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여학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학교의 전반적인 취업률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현재까지도 여학생과 관련한 취업 강의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학교 이외에도 △건국대학교△국민대학교△단국대학교와 같이 대학일자리사업을 수행 중인 여러 학교에서 취업과 관련한 여학생 전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학교 양캠에 존재하는 생활과스포츠 교양 과목 중 하나인 여성호신술 강의는 지난 2015년에 신설됐다. △노인△아동△여성△장애인 등이 사회적 약자란 인식과 더불어 이들의 호신 능력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 게 강의 개설의 배경이다. 여성호신술을 담당하는 박효주 우리학교 강사는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엔 체격과 힘의 차이가 존재해 여학생끼리 연습했을 때 진행이 매끄러웠고 동작을 위한 파트너 선정이 용이했다"며 남학생의 참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 전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외대학보는 여성 전용 수업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우리학교 재학생의 여성 전용 수업에 대한 인식 및 반응'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여성 전용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남학생 응답자의 92%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론 '성별에 따른 수강 자격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69.6%)'라고 답했으며 뒤를 이어 '강의 개설 목적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서(17.4%)'를 꼽았다. 우리학교 남학생 A 씨는 "현재 성별 구분 없이 수강 가능한 '휩스커리어디자인(HUFS Career Design)' 수업이 취업을 대비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유사성을 띤다"고 전한 한편 "여학생에게 특화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아 취업 전략 등을 가르치는 강의가 있다면 남학생을 위해서도 휩스커리어디자인 수업 이외에 남학생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강의를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여학생 전용 과목을 개설하게 되면 남·여학생이 모두 참여 가능한 강의의 수가 그만큼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성 전용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 여학생 응답자의 65%는 여성 전용 수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론 '여성만이 필요로 하는 강의 내용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서(64.3%)'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을 위한 학교 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28.6%)'가 뒤를 이었다. 여학생 응답자 중 여성 전용 수업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여학생 응답자의 35%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여성 전용 수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 이유론 '성별에 따른 수강 자격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57.1%)'에 과반이 동의했으며 '강의 개설 목적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아서(28.6%)'란 답변이 뒤를 이었다.

여성 전용 수업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여학생 응답자 중 9.5%가 여성 전용 수업을 수강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수업 내용이 실제로 도움이 됐냐'는 질문엔 응답 비율이 각각 50%로 나뉘었다. '수업이 도움이 됐다'고 답한 여학생의 모두가 '성별에 따른 격차가 메워질 수 있었다(100%)'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수업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여학생들은 그 이유로 '강의 개설 목적이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50%)'와 '수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서(50%)'를 꼽았다. 이유경(영여·영문 21) 씨는 "여성만을 위한 강의가 있다는 건 남성만의 길과 여성만의 길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여성 전용 수업에 대한 논란에 우리학교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한단 입장을 밝혔다. 설캠 진로취업센터 관계자는 "우리학교 진로취업센터에선 학생의 만족도와 요구를 반영해 교과목 개설과 폐지를 결정하고 있다"며 "여대생커리어개발 교과목도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현숙 글캠 진로취업센터 팀장은 "제1차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의 내용은 여학생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변화된 제2차 사업부터는 이를 강조하는 정도가 줄어들었다"며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강의가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로 지적된다면 교과목을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여성호신술 강의에 대해 박 강사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호신술 강의 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한 한편 "여성호신술 강의가 간단한 태권도 동작을 다루는 만큼 정규 태권도 과목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며 신규 강의 개설 없이도 남학생의 호신 능력 증진이 가능하단 의견을 전했다.

우리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여성 전용 수업에 대한 논의가 존재했다. 지난 2015년 서울대학교에선 1학기 수강신청을 앞두고 일부 선택교양 체육교과에 여성 전용 강의가 개설돼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학교 측은 체력 등의 문제로 남학생과 함께 참여하는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단 여학생의 의견을 반영해 △농구△수영△체력단련 영역에 여성 전용 수업을 한 강의씩 신설했다. 하지만 역차별이란 지적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저버렸단 학생들의 의견에 학교 측은 현재 모든 강의를 성별에 따른 수강 제한 없이 개방하고 있다. 같은 해 연세대학교엔 파워다이어트 강의가 신설됐다. 해당 강의는 수강 가능 학생을 체질량지수(BMI)가 20% 이상인 여학생으로 한정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다이어트 방식엔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있단 의견과 해당 강의의 개설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는 것이란 의견이 제기되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오갔다. 현재 해당 강의는 모든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 상태다. 또한 지난 2017년 경성대학교에선 2학기를 앞두고 공과대학의 시스템응용프로그래밍 강의를 신청한 남학생에게 수강 철회를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학교 측은 교육편람에 여학생을 위해 개설한 강의라고 공지했으나 많은 남학생이 수강을 신청해 회의를 진행한 끝에 본래 취지대로 여학생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라 밝혔다. 해당 수업은 여성공학인재양성(WE-UP)사업 특별전공학습 과목으로 현재까지 여성 전용 강의로 이어져 오고 있다.

여성 전용 수업에 대해 우리학교 학생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2020학년도 2학기에 여학생취업실전전략을 수강한 박채빈(동유럽·폴란드 18) 씨는 "이 강의를 통해 자체적인 경쟁력을 기르고 커리어 개발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 이 강의가 지속된다면 개설 목적과 취업 전략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내용적 측면에서 차별화를 둔 수업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남학생 B 씨는 "취업과 관련한 수업은 모든 학생이 함께 수강하며 의견을 나눌 때 더 나은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는 전학생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감수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오늘날 모두를 위한 강의 내용을 모색하기 위해 학생과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시점이다.

명나디 기자 05nadi@hufs.ac.kr

폭우로 되돌아보는 양 캠퍼스 수방시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선

이번 달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선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도 폭우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우리학교 설캠 스마트 도서관(이하 도서관) 지하실과 글캠 백년관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고 글캠 주위의 보도블록이 훼손됐다. △폭우 속 양 캠퍼스(이하 양캠)△양캠 수방 시설 점검△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폭우 속 양 캠퍼스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에 115년 만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14명의 사망자와 6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8월 한 달 평균 강수량은 전국 282.6mm이고 서울은 348.2mm이지만 8일 하루 동안 서울에 내린 비는 최대 380mm인 것으로 기록됐다. 이번 폭우로 인해 낮은 지대에 위치한 강남 일대는 물에 잠기며 큰 시설물 피해를 입었다. 또한 수도권에서 주택 및 상가 침수가 741건 발생하고 서울 동작구에선 아파트 옹벽이 무너졌단 신고가 4건 접수되는 등 이번 침수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소식이 여러 차례 전해졌다.

우리학교 역시 폭우의 여파를 피해갈 순 없었다. 산림청이 지난 9일 오전 11시 용인시를 포함한 37개 시와 군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글캠 총학생회 '외대의 봄'(이하 글캠 총학)은 9일 오후 10시부터 16일 오전 8시까지 자체적으로 글캠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다. 캠퍼스 이용 시간은 산사태 발생 주의보 종료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됐으며 과방과 동아리방을 포함한 모든 단과대학 건물과 학생회관 이용이 금지됐다. 글캠 총학은 학생들에게 기숙사와 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건물에서 건물 운영팀의 지침을 우선적으로 따를 것을 공지했다. 당시 글캠 백년관 지하 주차장과 지하 기관실이 침수됐고 이로 인해 현재 백년관에 있는 5개의 엘리베이터 중 1대만 정상 운영 중인 상황이다. 배준형 우리학교 글캠 시설관리팀 팀장(이하 배 팀장)은 "개강 전까지 3대 이상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문경상관은 내부적으로 피해를 입은 건 없지만 건물 뒤쪽 안전 펜스가 토사로 인해 일부 파손됐다. 교내하천과 중앙하천엔 수해로 인한 토사가 유입됐고 글캠 시설관리팀은 학내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위험 구간에 안전띠를 설치했다. 학생회관 지하와 4층에 있는 동아리방은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박승태 글캠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국제지역·한국 19)(이하 박 비대위원장)은 "4층과 지하에 있는 여러 동아리방 내에 물이 고여 감전 위험이 있어 냉장고 및 각종 전자제품의 코드를 점검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글캠 총학은 "폭우 이후 캠퍼스 내의 과속방지턱과 인도 등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고 학교 관련 부처에 피해 시설을 개강 전까지 복구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배 팀장은 "강풍을 동반한 기습적인 폭우로 교내 배수 용량을 초과한 우수가 교내하천을 범람해 도로 및 주변 시설물을 파손했다"며 "개강 전에 학교 시설이 모두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나 보도블록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와야 수리를 시작할 수 있기에 아직 수리하지 못한 상태다"고 밝혔다.

설캠에선 △도서관 지하 1층 계단△본관 지하 전기실과 주차장△역사관 오바마홀과 지하 기계실의 천정이 누수됐고 사회과학관 건물 옆 지반이 침하됐다. 설캠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오바마홀과 기계실을 제외한 역사관은 전문업체 주도하에 물받이 배관을 설치해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본관과 역사관 기계실은 장마철이 완전히 종료된 후 보수 예정이다"고 말했다.

◆양 캠퍼스 수방 시설 점검

과거에도 설캠과 글캠에 몇 차례 폭우 피해가 있었다. 설캠은 2018년도 기습 폭우로 인해 국제학사 건물 뒤쪽이 침수됐고 국제학사 지하 주변전실에 빗물이 유입됐다. 국제관 5층과 6층 또한 천정 누수로 빗물이 건물 안으로 유입됐다. 설캠 시설관리팀은 주변전실 전기시설 보호를 위해 보양 작업을 실시했고 앞으로의 폭우를 대비하기 위한 차수판과 양수기를 국제학사 뒤쪽에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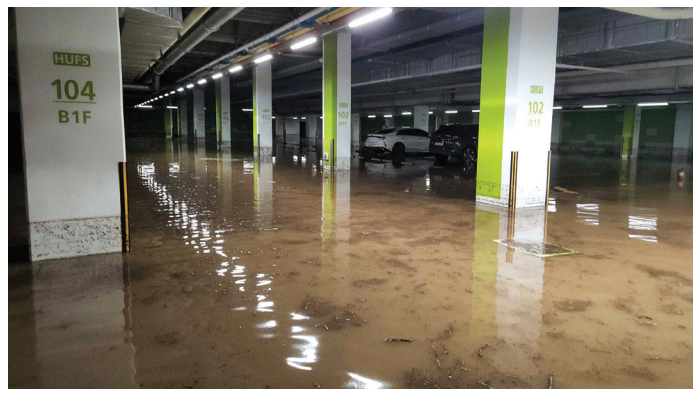
글캠은 2011년도에 수도권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해 △건물에 토사 유입과 사면 붕괴△대운동장 침수△명수당 범람△정문 붕괴 위험△중앙도로 아스팔트 포장 침하△학생회관 후면 붕괴 등의 피해를 입었다. 학생회관에 많은 양의 흙과 빗물이 쏟아져 건물 1층 외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이로 인해 △경력개발센터△매점△복사실△우체국 등의 내부시설이 침수됐다. 당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도 잇달아 발생했다. 2011년 후에도 매해 지속적인 폭우로 인해 글캠은 크고 작은 문제를 겪어왔고 이와 함께 시설 보완 또한 이뤄졌다. 2017년도엔 빗물로 인해 옥상 표면에 균열이 생겼고 그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4층에 있는 동아리방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글캠은 지난해 폭우 이후에 용인시의 지원으로 건물 주변 산마루 녹지 작업과 사방댐 설치 작업을 수행했고 교내 배수로를 정비했다.

반복되는 설캠과 글캠의 피해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외대학보는 양캠의 수방시설을 점검했다. 우리학교 설캠에서 직접 배수시설을 조사해본 결과 설캠 각 건물에 설치된 배수펌프는 총 25개로 확인됐다. 건물 옥상과 그 주변엔 배수관과 배수로가 설치돼있고 점검 역시 주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교내 도로에 있는 배수로 또한 이물질로 인해 막히는 일이 없도록 덮개를 설치한 상태다. 교내 배수시설의 수가 충분하냔 질문에 설캠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중 배수시설이 원인이 된 피해는 없었기에 그 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설캠 지하복합시설 침수 (출처: 설캠 시설관리팀)

▲설캠 사회과학관 옆 지반침하 (출처: 설캠 시설관리팀)

▲글캠 어문학관 이동로 훼손 (출처: 글캠 시설관리팀)



▲글캠 백년관 지하 주차장 (출처: 글캠 시설관리팀)

글캠의 배수로 시설은 △건물 주변의 배수로 구간△명수당에서 이어지는 중앙하천△산마루 배수로△우수관 라인△중앙도로 배수로 측구에서 집수정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확인됐다. 산사태 방지 구조물은 교양관과 인문경상관 뒤쪽 등 산사태가 취약한 구간에 설치돼 있었다. 또한 다른 건물 주변 산마루엔 산사태 방지 녹지가 구성돼 있는 상태였다. 교내 배수시설 수가 충분하냔 질문에 배 팀장은 "교내 배수시설은 법적 허용기준에 근거해 충분한 수가 설치돼있다"고 답했다.

글캠이 위치한 용인시는 주변에 산과 농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매해 폭우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다. 글캠 역시 사면이 산으로 감싸고 있어 장마나 폭우 때 산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1987년에 준공돼 타 건물에 비해 노후된 학생회관은 비가 많이 오면 옥상 표면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침수피해를 크게 입는 건물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학생회관은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물이고 지형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산사태 방지 구조물이나 수방 시설이 잘 설치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배 팀장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에 걸쳐 학생회관 뒤쪽 산을 포함해 도서관까지 산사태 방지 구조물을 설치했다"며 "이후 학교 건물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없었고 이번 폭우 또한 학교 건물이 산사태로 피해 입진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도서관 주차장을 지나 기숙사까지 가는 산 쪽은 산사태 구조물이 따로 설치돼있지 않아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교는 우리학교 뿐만이 아니다.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이하 서울대) 역시 이번 폭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지난 8일에 내린 폭우로 인해 내부가 침수와 함께 정전됐고 행정관 지하에 있는 인터넷과 전화선 등의 설비는 폭우로 쓸려온 토사로 인해 작동이 중지됐다. 결국 서울대 사범대학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근 도로 훼손을 고려해 2학기 수업 일부를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권장일 서울대 시설관리국 행정관(이하 권 행정관)은 현재 서울대 피해 복구 진행 상황에 대해 "시설 임시 복구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청소는 거의 마친 상태이며 개강 전까지 대부분의 강의실은 원상복구 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이번과 같은 심각한 폭우가 발생했을 때의 대비책에 대해 권 행정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피해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비책을 세울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가천대학교(이하 가천대)에선 운동장 뒤쪽에 있는 영장산이 폭우로 인해 붕괴되며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나무△바위△흙 등이 가천대 운동장을 뒤덮었다. 박태흠 가천대 시설운영팀 국장(이하 박 국장)은 현재 가천대 산사태 피해 복구 진행 상황에 대해 "정부 합동 조사를 진행해 피해 원인 조사를 마쳤다"며 "학교 자체적으로 토사를 치우는 등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박 국장은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기회 삼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극단적인 형태로 변해가는 기후에 대비해 시설별 자체적인 물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단 의견도 존재한다. 김주완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교수는 "극단적인 호우는 단 한 번만 발생해도 큰 피해를 남기는 만큼 바뀐 기후를 토대로 도시 배수와 방재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설캠 시설관리팀은 "이상폭우 현상을 대비해 방학과 학기 중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시설물을 수시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며 "폭우나 재난 발생 시 시설관리팀 비상 근무를 시행해 학사 운영에 최대한 지장이 가지 않도록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조윤재(국제지역·브라질 22) 씨는 "심각한 폭우가 학기 중에 일어났다면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캠퍼스가 조성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긴밀한 시설 보수 및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우리학교에도 필요할 때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캠퍼스 내 음주 문화 개선, 건강한 학교를 위한 첫걸음

지난 4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이에 우리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이 수업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른 대면 활동 정상화와 함께 교내에서 음주를 즐기는 학생이 늘어나며 음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생겨났다. 이에 대학교에 올바른 음주 문화를 조성해야 한단 여론이 제기됐다. △캠퍼스 내 음주 현황△캠퍼스 내 음주 피해 사례△나아가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자.

◆캠퍼스 내 음주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학교 캠퍼스 내 음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대학생 음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대학생 음주 행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전반적인 음주 빈도와 음주량은 감소했으나 공원과 대학 캠퍼스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하는 경우가 코로나19 이전 4.3%에서 코로나19 이후 11.5%로 약 6.2%p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음식점 영업 시간 제한이 생기자 늦은 시간까지 음주를 즐기고 싶은 청년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공공장소를 택한 것이다. 우리학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국제학사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미화원 A 씨(이하 A 씨)는 "지난해에 비해 이번 해 교내에 술병 등 음주 후 발생한 쓰레기가 크게 늘어났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외대학보에선 우리학교 학생의 캠퍼스 내 음주 현황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캠퍼스 내에서 음주하는 학생을 본 적이 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의 35.3%가 주 1회 이상 3회 미만 꼴로 교내에서 음주하는 학생을 본다고 답했다. 주 3회 이상 목격한단 응답이 32.4%로 이를 뒤따랐다. 매일 목격한단 응답도 8%를 기록했다. 최하은(사회·행정 21) 씨는 "설캠의 경우 학기 중에 캠퍼스 내 잔디광장에서 술을 마시는 학생을 거의 매일 본다"고 전했다.

한편 '캠퍼스 내에서 음주를 한 적 있는가'란 질문엔 응답자의 64.7%가 '캠퍼스 내에서 음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59.1%는 많은 학우와 함께 술을 마시기 편해서 캠퍼스 내에서 음주를 즐겼다고 답했으며 늦게까지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서 캠퍼스 내에서 술을 마셨단 반응은 9.1%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즉흥적으로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22.7%)'△'조별과제가 끝난 후 속상해서(4.5%)'△'캠퍼스 운치가 좋아서(4.5%)' 등 캠퍼스 내 음주를 즐기는 데에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다.

◆캠퍼스 내 음주로 인한 피해

캠퍼스 내 음주 행위는 여러 직·간접적인 문제를 낳는다. 지난 5월 13일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 설캠 자유게시판에서 한 익명의 재학생이 "잔디광장이 술 취한 학생들로 인해 시끄럽다"며 "소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니 제발 다른 장소로 이동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또한 지난 6월 2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자유게시판엔 "밤중에 술을 마시고 다투는 학생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단 우리학교 학생의 목소리가 여럿 존재한다. 실제로 설문조사 응답자의 26.5%가 캠퍼스 내 음주를 한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이들 중 88.9%가 소음 및 고성방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음주로 인한 소음 및 고성방가뿐만 아니라 음주 후 캠퍼스 내에 발생하는 쓰레기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 등이 그대로 교내에 버려져 방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캠퍼스 내에서 음주한 학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한 설문조사 응답자 중 44.4%가 음주 후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설캠 잔디광장과 인문과학관(이하 인문관) 앞 벤치에서 음주 후 발생한 쓰레기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교내 곳곳에 분리수거 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쓰레기는 캠퍼스의 미관을 훼손시키고 교내 미화원의 업무를 가중시킨다. A 씨는 "학생들이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허유진(아시아·마인어 21) 씨는 "인문관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이 쓰레기를 두고 가는 걸 자주 목격한다"며 "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글캠 역시 명수당 앞 벤치와 백년관 앞 운동장에서 음주 후 발생한 쓰레기가 자주 목격된다. 주형민(동유럽·세크어 20) 씨는 "명수당 앞 벤치와 백년관 앞 운동장에서 술병과 과자봉지 등의 음주 후 발생한 쓰레기를 볼 때마다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주류 면허법)'에 따라 대학교 축제 등 행사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학교 내 음주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진 않다. 우리학교 또한 음주 금지 규정을 학칙으로 마련해두지 않았다. 다만 학칙 제55조 제1항 제2호에 '폭행, 상해, 성희롱 · 성폭력 · 성차별 행위를 한 때 또는 음주 행위로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교내 단순 음주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지만 음주한 학생의 행동이 학교에 해가 되는 행위로 판단된다면 징계를 내린단 뜻이다.

실제 설문조사 응답자 중 11.1%가 '음주를 한 학우의 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5일 인하대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부 전문가들은 대학의 과도한 음주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단 의견을 제시했다. 부적절한 음주 문화가 폭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단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설문조사 응답자의 29.4%가 캠퍼스 내 음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중 61.8%가 캠퍼스 내 음주 금지 규정 제정을 통해 교내 음주 문화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수훈 글캠 학생지원·장학팀 과장은 "아직까지 캠퍼스 내 음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사례는 없다"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시 기존의 학칙에 따라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고 전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재학생 B 씨는 "새벽까지 캠퍼스 내에서 술을 마시면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설정해 교내 음주 문화가 개선되길 원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응답자의 23.5%가 총학생회(이하 총학) 혹은 개별과 학생회 주도의 지속적인 절주 캠페인을 통해 음주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글캠 총학 '외대의 봄'은 "시간이 날 때마다 총학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순찰을 돌고 있으나 성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한편 캠퍼스 내에서 음주하지 못하도록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학교도 존재한다. 중앙대학교는 지난 2011년부터 '캠퍼스 관리 규정'을 통해 학내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천대학교는 지난 2013년 교내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된 학생을 최고 제적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또한 절주 캠페인을 통해 교내 음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 학교도 있다. 계명문화대학교의 캠퍼스 절주 동아리 '헬스 플러스(Health Plus)'는 대학 구성원들의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실천 및 확산과 대학 내 음주 폐해 예방 및 음주규제정책 지지를 목적으로 건전 음주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캠퍼스 내 과도한 음주는 소음 및 쓰레기 문제를 일으키는 등 다른 교내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활동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전한 학내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 모두가 적절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지명원 기자 04jimw@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09.30.(금) ~ 10.07.(금)	2022.11.14.(월) ~ 11.18.(금)
면접전형	2022.10.22.(토) 10:00	2022.12.03.(토) 10:00
합격자 발표	2022.11.04.(금) 16:00 예정	2022.12.16.(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2.11.07.(월) ~ 11.11.(금) 예정	2022.12.19.(월) ~ 12.23.(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국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유아교육 •수학교육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어린이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외국대학, 독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따라 일부 전공의 경우 온라인(비대면)면접을 실시 할 수 있음.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 학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처 입학담당관 (TEL 02)2173-2419 FAX 02)2173-3358)
○ 주 소 :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건물 1층 111호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1번 출구) 걸어서 5분 거리
○ 홈 페 이 지 : gse.hufs.ac.kr
○ 이 메 일 : hufsgs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2023학년도 전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2.09.23(금) ~ 10.07(금)	2022.11.04(금) ~ 11.21(월)
고사장 발표	2022.10.19(수) 15:00	2022.11.30(수) 15:00
면접전형	2022.10.22(토) 10:00 예정	2022.12.0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2.11.04(금) 15:00	2022.12.16(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2.11.07(월) ~ 11.11(금)	2022.12.19(월) ~ 12.23(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 · 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감사)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미디어커뮤니케이션)
라.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문화엔터테인먼트)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외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 www.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전형장소:서울캠퍼스 (자세한고사장및고사실은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장학금 (*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 본 대학원 내 학과간 교차수강(졸업학점의 50% 까지) 가능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 (정치행정언론대학원)
TEL. 02-2173-2428,2429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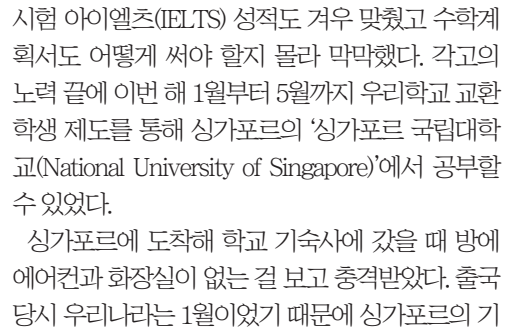
어서와 해외는 처음이지

너무나도 그리운 싱가포르

학교 공부에 전념하느라 교환학생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졸업하기 전에 한 번쯤은 해외에 가고 싶단 생각에 교환학생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교환학생 지원 과정은 쉽지 않았다. 영어 시험 아이엘츠(IELTS) 성적도 겨우 맞췄고 수학계획서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막막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번 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학교 교환학생 제도를 통해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에 도착해 학교 기숙사에 갔을 때 방에 에어컨과 화장실이 없는 걸 보고 충격받았다. 출국 당시 우리나라는 1월이었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기후가 훨씬 덥게 느껴졌다. 낯선 나라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유학 생활 초반엔 매일을 알차게 보내려 노력했다. 온종일 △강의 수강△운동△학교 과제 등을 하며 바쁘게 지냈다. 싱가포르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나 교환학생 초반엔 수업을 따라가고 생활에 적응하느라 굉장히 힘들고 무료한 나날을 보냈다.

생활에 활력이 생긴 건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류 프로그램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버디 프로그램(NUS Buddy Program)'에 참여하고 나서부터였다.



이 제도에서 현지 친구 두 명과 짝이 됐는데 그중 한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싱가포르에서 살던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현지 친구가 쓰는 영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말로 통역해 줬다. 그들 덕분에 △산길 여행△현지 음식 먹기△현지인 친구 집에서 밥 먹기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특히 '로티 프라타(Roti Prata)'는 싱가포르에서 꼭 먹어 봐야 할 음식이라고 생각할 만큼 맛있었다. 친구들과 함께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현지인 친구가 활동하는 합창단 공연을 보러 간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을 땐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친구 덕분에 합창 공연의 매력을 알게 됐다.

유학 기간은 짧았지만 지금도 싱가포르에서의 삶이 많이 그립다. 그래서인지 그곳에서 다시 살고 싶어 현지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유학 생활 초기에 적응이 힘들었을 뿐 싱가포르 생활 자체가 싫진 않았다. 유학 갈 국가를 싱가포르로 정한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를 갔거나 교환학생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소중한 경험을 하지 못 했을 것이다.

싱가포르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행복하고 좋았지만 아쉬웠던 점도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는 내 기대보다 많은 곳을 돌아다녀 보지 못한 것이다. 싱가포르가 큰 나라는 아니지만 관광하기 좋은 장소가 여럿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곳을 방문해 보지 못해 아쉽다. 두번째는 학교 수업 방식에 너무 늦게 적응한 것이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선 한 수업이 강의 2시간과 토론 수업 2시간으로 총 4시간 동안 진행된다. 처음엔 낯선 방식의 수업에 적응하지 못해 열심히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다 학기가 거의 다 끝날 때쯤이 돼서야 강의와 토론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다. '한 학기만 더 있었다면 훨씬 열심히 했을 텐데'란 생각이 들었다. 싱가포르에서 느낀 이러한 아쉬움은 앞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매 순간을 열심히 살자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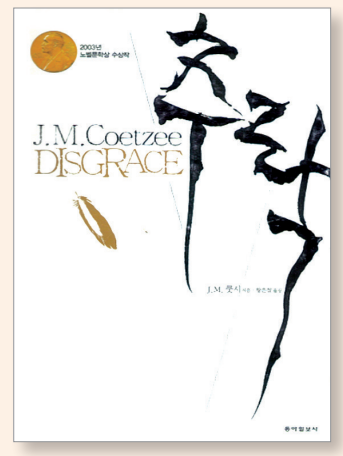
임진우(영어 · EICC 18)

읽어서 세계속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추락>

- 한 남자의 추락을 통해 드러나는 백인 지식인의 위선 -



1948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에서 법률로 제정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는 인종별로 △거주지 분리△결혼 금지△공공시설 사용 제한△승차 분리 등을 정당화한 인종 분리 정책이다. 50년 가까이 남아공 사회를 지배하던 아파르트헤이트는 1994년 민주적 선거로 당선된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가 이를 폐지할 것을 선언하며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이 책은 아파르트헤이트가 폐지된 직후 백인과 흑인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으로 혼란스러웠던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 남아공 출신 작가 '존 맥스웰 쿳시(John Maxwell Coetzee)(이하 쿳시)'는 책 '추락'을 통해 당시 백인 정권이 종식되고 흑인에게 정권이 이양된 남아공의 모습을 보여준다. 쿳시는 194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Cape Town)에서 태어나 케이프타운 대학교(University of Cape Town)에서 영문학과 수학을 전공했다. 그 뒤 미국으로 건너가 텍사스대학교 오스틴(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다. 이후 뉴욕주립대학교 버펄로캠퍼스(University at Buffalo)와 케이프타운 대학교에서 영문학 교수로 재직한 뒤 호주로 이민을 떠나 2006년 호주 국적을 취득했다. 쿳시는 남아공에서 백인 지식인으로 살아갔던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그의 작품 속 주인공에게 그대로 투영시켰다. 그의 작품 대부분은 백인 기득권층인 주인공의 시점에서 전개되며 인종차별의 실상을 백인의 시점에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추락'에서 역시 이러한 방식이 사용됐다. 쿳시는 이 책으로 부커상과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소설 속 주인공 '데이비드'는 50대의 백인 남성 교수로 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친다. 그는 제자였던 유색인종 학생 '멜라니'와 성관계를 가졌단 혐의로 고발당한다. 학교 측은 그에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자신의 죄는 인정하나 사과는 하지 않겠단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직장을 잃은 그는 외동딸 '루시'의 농장에 가 그녀의 일을 도우며 안정을 취한다. 그러던 중 세 명의 흑인이 루시의 집에 침입해 데이비드를 폭행한 뒤 루시를 성폭행하고 떠난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데이비드는 뒤늦게 멜라니의 부모를 찾아가 무릎을 꿇으며 사죄한다.

이 소설은 백인 작가가 백인 주인공을 내세워 그가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후 사회적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그려냈단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쿳시는 소설 내내 데이비드를 제외한 다른 인물에겐 목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오롯이 데이비드의 시점으로 소설이 전개되기에 독자는 그의 뻔뻔하고 이기적인 생각에 더 쉽게 분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백인 기득권층의 위선에 대해 폭로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도와도 부합한다. '추락'을 읽으며 쿳시가 말하고자 했던 당시 백인 지식인의 이중성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란다

양진하 기자 04jinha@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2023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2.09.23(금) ~ 10.07(금)	2022.11.07(월) ~ 11.21(월)
고사장 발표	2022.10.19(수) 15:00	2022.11.30(수) 15:00
면접전형	2022.10.22(토) 10:00 예정	2022.12.0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2.11.03(목) 15:00	2022.12.15(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2.11.07(월) ~ 11.11(금)	2022.12.19(월) ~ 12.23(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lkirk College)
아. 추가학점이수트랙신설
(논문 · 졸업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한국외국어대학교TESOL대학원교학과
TEL.02-2173-3521~2FAX.02-2173-358
(우)02450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3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3학년도 전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2.10.04(화) ~ 10.14(금)	2022.11.14(월) ~ 11.25(금)
고사장 발표	10.20(목) 15:00	12.01(목) 15:00
면접전형	10.22(토) 10:00 예정	12. 0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1.03(목) 15:00	12.15(목) 15:00

• 위 전형계획 및 시행 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전형은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 문학 학과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금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 · 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정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만달러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로 조기 졸업 가능(학업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KF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청년 창업지원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

지난 5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발표한 '2022년 1~3월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정보통신업(9.6%)과 교육서비스업(8.5%) 등 '기술 기반 업종 창업'(이하 기술 창업)이 비대면 및 온라인 업무 확대로 인해 1분기 누적기준 6만 2000개를 돌파했다. 이처럼 청년층의 창업 열기는 높아지고 있지만 그들이 창업 현장에서 마주하는 창업지원제도의 한계는 여전한 상황이다. 기사를 통해 청년 창업의 △현황△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청년 창업

2020년을 기점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창업 열기는 고조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대학생 및 직장인 955명을 대상으로 창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각각 83.3%와 82.1%의 대학생 및 직장인이 '창업에 도전하고 싶다'고 답했다. 다만 이번 해 1분기 창업 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만 건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까지 성행했던 부동산업 창업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정책통계분석과 관계자는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2018년 부동산 창업이 급증했으나 이번 해부터 혜택이 축소되며 창업 흐름이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층이 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론 본인이 원하는 방식과 기간에 맞춰 일하길 희망한단 점이 크게 두드러졌다. 이번 해 온라인 취업 플랫폼 '사람인'이 청년층 2,92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업 의향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창업 동기로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47.5%)'를 가장 많이 택했다. 다음으론 '정년 없이 평생 일할 수 있어서(40.4%)'와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일하고 싶어서(35.9%)'가 뒤따랐다.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스스로 일하고 싶어하는 자주성과 소속화를 꺼리는 청년층의 특징이 최근 채용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창업에 관심을 보이는 청년층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업무 방식과 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생기는 고충 역시 응답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창업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창업이 어렵다'는 의견이 83.9%로 '직장 생활이 어렵다(16.1%)'는 답변의 5배를 넘었다. 창업이 더 어려운 이유론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71.2%)'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청년 창업의 실태

청년 창업 현장에선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는 지원과 짧은 사업 유지 기간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기술 창업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서도 청년 창업이 늘고 있으나 이들이 창업 정보를 얻고 교육 및 컨설팅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은 제한적이다. 기술 창업에 나선 이들이 많은 정부 지원과 인적·물적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IT와 인공지능 등 미래가치가 확실한 분야는 정부 지원을 받기가 비교적 쉬울 뿐 아니라 기업 투자 유치절차와 기술 교육 체계도 비교적 잘 잡혀 있으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요식업 등 비기술 기반 업종에 대한 지원은 열악하단 지적도 이어졌다. 패션업계에서 브랜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정상욱 씨가 지난 5월 일간지 '스카이데일리'에서 밝힌 인터뷰에 따르면 "패션 분야의 미래가치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에 비해선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 창업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의 편향된 지원책을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실제로 정부의 지원책은 소상공인 창업보다 기술 창업에 몰려 있다. 중기부가 발표한 '2022년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르면 창업 지원 예산 3조 6668억 원 중 기술 기반 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적용될 수 있는 사업예산은 최대 2.4%인 869억 8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일부 사업을 제외한 창업 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술 창업이나 벤처 투자 등에 지원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했다.

청년 창업의 짧은 사업 유지 기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개인 창업 사업체 생존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35세 미만 청년층의 창업 유지 기간은 2.3년으로 나타났다. 초기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창업의 특성상 자금 확보 단계에서부터 창업 유지단계까지 청년층이 체감하는 금전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평균 창업 자금은 약 3억 원으로 그중 자기자금 비중은 94%를 차지했다. 실제로 해당 조사에서 창업기업들은 창업 준비단계에서 '자금 확보'를 가장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지목했다. 정부의 지원 자금은 창업 유지만으로 빠듯한 수준이어서 수익구조나 비즈니스 모델 구축까지 연결되긴 힘들단 것이다. 이러한 짧은 사업 유지 기간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초기 투자비용 일부만 지원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마케팅△연구 및 개발(R&D)△인력 등 후처리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정부의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외대학보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청년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창업 계획이 있는가'란 질문에 응답자 중 70%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창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63.6%)'△'취업난 때문에(9.1%)'△'갖고 있는 능력이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9.1%)'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나 학교가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제도 이용 경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청년 창업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학생은 15.2%로 그중 20%만이 '제도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국가 지원의 청년 창업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학생은 27.3%였지만 그중 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1%뿐이었다. 최다희(융인·21) 씨는 "청년 창업 관련 제도의 지원 분야가 제한적이고 지원금액도 충분하지 않다"며 "대학기관이나 정부 같은 지원 부처의 종류와 수혜 대상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 정보 파악이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학교는 크게 '이문 스프링 사업단'과 '창업보육센터' 두 곳을 중심으로 학생 창업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문 스프링 사업단은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한 지역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학교는 단위형 캠퍼스 타운으로서 대학별 역량이나 특성을 바탕으로 청년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뒀다. 이번 해를 기준으로 이문 스프링 사업단엔 약 20개의 창업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어문 계열에 특화된 우리학교의 특징을 살린 '독립출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3년 미만의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주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업장을 비롯한 시설과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4년간 매해 신규 기업 모집 및 창업 동아리 관할을 맡아오는 등 사업화 역량을 갖춘 창업 아이템을 발굴 및 지원해왔다.

다만 교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은 대부분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업종이 제한적이다. 이문 스프링 사업단의 경우 '이문일공칠 문화상점'을 필두로 아직 출판업 분야에만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형 벤처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지원 자격을 한정하기에 지원 업종도 자연스레 소프트웨어나 스타트업 분야로 제한된다.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지원 분야의 범위가 좁아 창업지원제도의 이점이 반감된 것이다. 동아리를 통해 창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우리학교 중앙 창업 동아리 허브(HUVE)는 다방면에 창업을 고민 중인 동아리 부원들이 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각에선 창업에 가벼운 마음으로 진입하려는 학생들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기현(서양어·이탈리아어 17) 중앙 창업 동아리 허브 회장은 "창업을 단순한 동아리 활동으로 인식해 스펙 쌓기용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어문계열인 우리학교 특성상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찾기가 어려워 △고객분석△사업계획서△초기 설계 디자인 등 창업 계획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학교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다양한 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온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의 체계성이 보완돼야 한단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년 창업 실태에 대해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창업 지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 후속 조치가 부족해 창업 과정이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에 무분별한 지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지원받은 금액이 사업화와 상품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돼 사업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업은 청년층이 자신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사회에 내보이는 첫 관문이니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비 기자 04hanbi@hufs.ac.kr

수면 위로 떠오른 반지하 문제, 모두가 안전한 주거를 위해선

지난 9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에 거주하는 일가족 3명과 동작구 반지하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폭우로 인해 사망했다. 이외에도 대다수의 반지하 거주자는 폭우에 의한 침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거주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반지하 거주자의 주거권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지하 주거 실태△정부와 지자체의 반지하 정책△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반지하 현황과 실태

우리나라 정부는 반공 정서가 심화됐던 1970년대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법을 개정했다. 해당 법 개정 이후 건물을 건설할 때 반지하 형태의 지하실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됐다. 그러나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에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주거난이 심화되면서 반지하는 주로 거주지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거주를 목적으로 한 반지하의 역할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엔 총 32만 7,320개의 반지하 가구가 존재한다. 이 중 서울엔 61.4%에 해당하는 20만 849가구가 몰려있으며 수도권 내 반지하 주택은 전체의 95.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반지하의 평균 가구원 수는 1.9명으로 약 62만여 명이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거주지로 반지하를 택하는 이유는 임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번 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자료에 의하면 지하·반지하 주택의 월평균 임대료는 38만 7,900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부동산정보플랫폼 '다방'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원룸 월세 평균 임대료는 50만 원을 상회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청년층이 주로 반지하를 찾는다. 또한 국토연구원의 '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 거주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를 '가난한 가족의 최후 보루인 지하'라고 표현하는 등 반지하에 거주하는 이들이 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란 점을 드러냈다.

상당수의 사람이 거주 중이기에 일상에서의 안전이 확보돼야 함에도 반지하는 여러 위험에 노출돼있다. 반지하는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아 더위에 취약하며 지상층에 비해 곰팡이와 결로 발생 가능성이 크다. 또한 건축 구조상 반지하의 정화조와 하수관의 깊이가 낮아 오수의 자연 배수가 어렵다. 많은 비가 내리면 반지하의 화장실이나 부엌에서 발생한 오수가 역류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외에도 창문이 도로와 비슷한 높이에 설치돼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존재하며 범죄나 위기 상황에도 노출되기 쉽다. 이 같은 단점을 보유한 반지하에 대해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지하에 기거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야 한다"며 "반지하는 우리 도시에서 없어져야 할 주거 환경이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반지하 정책

△정부△서울시△경기도는 이번 폭우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반지하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사람들이 지하·반지하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거주 세대 구성 및 소득△임대료 수준△이주 수요△재해취약주택의 분포 및 밀집지 현황을 심층 조사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반지하를 포함한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지하층은 주거용이 아닌 타 시설로의 용도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반지하 거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하 오 시장)은 지난 18일 시청 브리핑룸 인터뷰에서 "△반지하△옥탑방△고시원을 뜻하는 '지옥고' 중 가장 먼저 줄여나갈 게 있다면 이는 반지하다"며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반지하에 거주하는 이들을 지상층으로 끌어내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에 반지하를 건축 허가 심사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건축 허가 원칙'을 전달했다. 또한 지하층 거주를 금지하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 중이다. 반지하 주택 일몰제는 최소 10년에서 최대 20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 이미 허가된 반지하 건축물을 순차적으로 없애 나가는 제도다. 이와 동시에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주택 제도' 등 각종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 공급을 보장하겠단 뜻을 전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 23만 호 이상 공급△반지하 가구의 지상 이주 시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반지하 주택 20만 가구 전수조사△주택 바우처 공급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영화 속 반지하에서의 생활 모습 (출처: 영화 '기생충')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재산권 침해 우려가 존재하기에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 제한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반지하 일몰제를 시행하기 어렵단 입장을 전했다. 대신 취약거주지역 내 방재시설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난 12일 경기도가 발표한 '수해복구 긴급대책'엔 △반지하 추가 신축 제한△우기 전 예찰 점검△취약주거시설 침수 방지대책 매뉴얼 마련△침수지역의 방재시설 성능 강화가 포함됐다.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반지하 소유자의 재산권과 주거지 이전 등의 문제로 근본적인 개선이 쉽지 않다"며 "상습 침수지역의 안전을 위해 방재시설에 대한 성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반지하 대책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

일각에선 이와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행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는 점은 정책 반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특히 서울시가 제시한 반지하 가구 거주자들의 수요를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해소하겠단 방안은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잇따른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20만 개가 넘는 서울시의 반지하 가구와 취약 계층의 문제를 공공 임대주택으로만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등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반지하의 수를 급격하게 줄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반지하 거주자가 고시원과 옥탑방 등 여전히 주거 환경이 취약한 거주지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시원과 옥탑방으로 수요가 몰림에 따라 임대료가 오르면서 주거 취약 계층 전반에 연쇄적인 타격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반지하를 무리하게 없애면 고시원이나 옥탑방 등으로 수요가 몰릴 위험이 있다"며 "주거 안전에 초점을 두고 여러 지원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오 시장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반지하를 점차 줄여나가겠단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며 "금지와 퇴출이란 단어를 사용함에 따라 거부감이 생기는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지어진 단층 규모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최소 20층에서 최대 30층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주택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단 입장을 내비쳤다.

반지하에 대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반지하 관련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반지하 주택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미국 뉴욕(New York)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해 11명의 반지하 거주자가 사망하고 많은 반지하 주택이 침수됐다. 이처럼 대부분의 뉴욕 반지하는 불법 개조로 인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양상을 보였다. 이후 반지하의 안전 문제가 대두됐고 지난 5월 뉴욕 주의회는 불법 반지하 주택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불법 반지하를 없애는 게 아닌 합법적인 거주 형태로 지정함으로써 법적 테두리 내에서 반지하 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합법화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마련해 반지하의 불법 개조로 인한 침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반지하 거주자들이 주거권을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상연 기자 04sangyeon@hufs.ac.kr

www.시사 한 줄 토픽.com

정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30%대 회복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단 긍정 평가는 2주 전보다 4%p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이어 잘못하고 있단 부정 평가는 2%p 하락한 63%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0.25% 인상해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연 2.25%였던 기준금리를 2.50%로 0.25%p 인상했다. 금통위는 지난 4월과 5월 각각 기준금리를 0.25%p씩 올렸고 지난 7월엔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다. 4회 연속 인상을 결정한 건 1999년 기준금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대마 판매 · 투약 사범 검거해

25일 남성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이 사이트 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다크웹(Dark web)'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대마 판매 · 투약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대마를 판매한 피의자 12명과 함께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해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한 166명을 검거했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국제 미국 정치인, 이번 달 들어 네 번째 대만 방문해

25일 미국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 연방 상원의원이 대만을 방문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해 이번 달에만 미국 정치인이 네 번째로 대만을 찾으며 대만 ·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안정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자폐스펙트럼장애,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이해

지난 18일 ENA에서 방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많은 관심 속에 종영됐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최종회에서 17.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이에 따라 드라마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우리학교에서 '특수교육의이해'를 강의하고 있는 양현규 강사를 만나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양현규 우리학교 사범대학 교육학 강사

Q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를 끌며 자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정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협회에서 DSM-5*를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진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폐스펙트럼장애에서 스펙트럼이란 단어가 쓰이는 이유는 자폐가 자폐적 성향의 연속선상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폐인들이 보이는 특성의 유사도에 따라 △경도△중등도△중도로 장애 정도가 구분돼요.

지금까진 자폐스펙트럼장애란 용어보다 '전반적 발달장애(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란 용어가 더 널리 사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발달수준의 특이성만을 강조한단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요. 해당 단어 속에 자폐를 가진 이들의 발달수준은 어떤 연령대의 사람에게서도 찾아 볼 수 없단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이에 현재 교육계를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장애 관련 법에선 자폐성장애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 자폐스펙트럼장애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주로 의학계와 교육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며 국내에서 자폐인들은 자폐성장애로 등록되고 있죠.

Q1-1.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발견되나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겪는 이들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려 한단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에 결함이 발생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을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라고 부르는데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전부 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동반합니다.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외의 특징으론 제한적이고 반복된 관심이나 활동을 들 수 있어요. 이 특징은 자폐인들마다 매우 다른 행동과 언어사용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팔을 상황에 맞지 않게 반복해서 흔들거나 특이한 어구 혹은 타인의 말을 의미도 모른 채 따라 말하는 반향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동일한 음식이나 의례적 패턴과 같이 동일성에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색다른 대상에 강한 애착을 보이거나 일반적인 주위 환경의 자극에 강한 혐오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Q2.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과 양상은 어떻게 되나요?

자폐스펙트럼장애를 겪는 이들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려 한단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에 결함이 발생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을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라고 부르는데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전부 이 사회적 의사소통장애를 동반합니다.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외의 특징으론 제한적이고 반복된 관심이나 활동을 들 수 있어요. 이 특징은 자폐인들마다 매우 다른 행동과 언어사용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은 팔을 상황에 맞지 않게 반복해서 흔들거나 특이한 어구 혹은 타인의 말을 의미도 모른 채 따라 말하는 반향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동일한 음식이나 의례적 패턴과 같이 동일성에 집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색다른 대상에 강한 애착을 보이거나 일반적인 주위 환경의 자극에 강한 혐오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Q2-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우영우'에게서 확인할 수 있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증상 및 특성은 무엇인가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와 관련한 특성으로 우영우는 눈맞춤이 안 되고 특히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어려워하고 사회적 상황 및 비유를 이해하지 못해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어야 하죠. 이외에도 말의 △강세△높낮이△리듬 패턴 없이 기계적으로 말하는 특징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표정인 상태로 말을 하는 점은 비언어적 요소인 표정을 언어적 요소와 통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제한적이고 반복된 관심이나 활동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거꾸로 읽어도 동일한 단어들을 나열하는데, 이는 상황에 맞지 않는 특이한 어구를 사용하는 동시에 의례적 패턴을 사용해 동일성에 집착을 보이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에 들어가기 전 머뭇거리는 행동은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어렵단 의미예요. 또한 고래에 남다른 애착을 보이는데 이는 색다른 대상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영우란 인물은 드라마 전개에 적합하게 창조해낸 가상 인물이란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앞서 자폐스펙트럼장애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가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는 의사소통의 자발성이 결여돼 있어야 함을 의미해요. 하지만 우영우의 경우 이것이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판정 받았다면 우영우처럼 언어 능력이 뛰어날 수 없어요. 자폐스펙트럼장애인들은 △기억△암산△음악△퍼즐 등 특정한 부분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서번트증후군'이 나타날 순 있지만 우영우처럼 암기와 더불어 이해와 적용까지 하는 경우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Q3. 자폐스펙트럼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엔 어떤 게 있나요?

우리나라에선 학생의 자폐스펙트럼장애가 교육적 성취에 불리함을 준다고 판단되면 특수교육을 통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선 이러한 학생들을 '자폐성장애학생'이라 칭합니다. 이 학생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거나 특수학교에서 분리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자폐성장애학생들을 위해선 교육과정과 관련해 기본교육과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으로서 자폐성장애학생들은 일반교육과정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수준에서 별도로 교육과정을 준비해두고 있는 것이죠.

Q4. 자폐스펙트럼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지원 정책엔 어떤 게 있나요?

우리나라에선 장애인으로 등록이 돼야 장애인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 등록은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이뤄집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생산품 구매 지원△생업 지원△의료비 지급△자금 대여△자녀 교육비 지원△자립훈련비 지급△장애유형·정도별 재활 및 자립 지원 서비스△장애수당 지급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장애등급이 폐지됐는데 이에 따라 자폐성장애인은 중증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어요.

더불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상에서 장애로 등록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선 해당 장애와 관련해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미디어에서 자폐가 소재로 다뤄지는 데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긍정적인 측면은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인식이 개선됐단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자폐스펙트럼장애인은 현실에서 마주할 기회가 거의 없죠. 이런 상황에서 드라마 인물을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특징을 알고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됐단 게 매우 긍정적이에요.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보는 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몇 번 받는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Q5-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미디어에서 자폐가 소재로 다뤄지는 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자폐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단 점이 우려됩니다. 우영우는 드라마를 위해 창조된 인물이고 그와 같은 이들이 실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자폐인도 노력하면 우영우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단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자폐인들과 그 가족들은 자칫 노력을 하지 않는단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탓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드라마 제작을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실재하는 장애인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드라마를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Q6. 자폐스펙트럼장애인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폐인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단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폐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에 이들이 장애를 스스로 극복하길 바라선 안 돼요. 평상시에 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장애라기보다 다양성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태도와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면 자폐인들과 매우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DSM-5: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약칭 DSM)의 2013년에 나온 다섯번째 개정판으로 미국정신의학협회(APA)에서 발행한 정신질환 분류 및 진단 절차

김예주 기자 05yejoo@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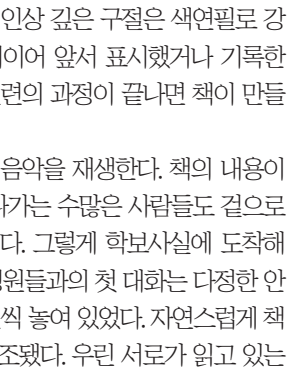
세계를 창조하는 글 한 줄

난 책을 읽을 때 음악 듣는 걸 좋아한다. 두 가지 일을 함께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건 없다. 책을 고르는 기준은 주로 책을 구입하러 간 날의 기분에 맡긴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책을 맞이하는 데 둔한 태도로 임하는 건 아니다. 책을 고르는 나름의 체계도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선 내 기분이 어떤지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러면 그때의 기분과 비슷한 분위기의 책에 빠져들고 싶어진다. 첫 번째 단계가 끝나면 서가를 한 바퀴 둘러보며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한다. 책장을 가득 채운 책의 제목과 겉표지를 천천히 살펴본다. 때때로 읽고 싶은 책이 여러 권일 경우 효율적인 결정을 위해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간다. 이 단계의 핵심은 가장 먼저 손길이 닿은 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음악을 고르는 기준은 선율이지만 책과 노랫말의 언어가 같으면 머릿속에서 뒤엉키기 때문에 해외 곡과 피아노 연주를 선호한다.

책과 음악이 모두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감상이 시작된다. 독서는 세계를 창조한다. 한 줄의 글은 평면을 그린다. 두 줄의 글은 차원을 높인다. 세 줄의 글은 색을 입힌다. 다채로운 선율은 세계를 감싼다. 책을 읽으며 마주한 인상 깊은 구절은 색연필로 강조 표시를 하거나 휴대전화의 메모장에 기입한다. 뒤이어 앞서 표시했거나 기록한 구절을 다시 문서로 옮기는 사후 작업을 진행한다. 일련의 과정이 끝나면 책이 만들어 낸 새로운 세계가 선명해진다.

학보사실로 발걸음을 옮기며 책을 읽을 때 들었던 음악을 재생한다. 책의 내용이 떠오르고 어느새 나는 그 세계 안에 있다. 주위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저마다의 세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학보사실에 도착해 처음 정식 학보 회의에 참석했다. 한데 모인 학보 구성원들과의 첫 대화는 다정한 안부 인사로 시작됐다. 그런데 모두의 자리엔 책이 한 권씩 놓여 있었다. 자연스럽게 책에 관한 질문으로 이야기가 흐르며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우린 서로가 읽고 있는 책을 선택한 배경에 대해 말했다. 다음으로 현재 책을 읽으며 느끼고 있는 점들을 나눴다. 모두 책을 읽고 나면 감상문을 남긴다든지 학보의 칼럼에 싣는다든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유한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학보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우린 각자의 세계를 공유하며 짧은 시간이나마 서로를 더욱 알 수 있었다.

책엔 특별한 힘이 있다. 책이 만들어낸 세계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변화는 때론 타인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극진한 마음과 진실한 행동으로 그 힘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싶다. 나의 글 한 줄이 세계가 창조되는 시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은 지난 외대학보 제1061호의 독자 위원으로 활동하며 더욱 구체화됐다. 독자 위원으로 학보를 정독하고 나의 생각을 담아내며 학보의 새로운 매력을 알 수 있었다. 학보가 일방적인 정보 전달의 매체가 아님을 깨달은 것이다. 학보는 언제나 해결책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물음을 던지며 분리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소통을 돕는다. 또한 다른 독자 위원들 및 담당 기자와 의견을 나누며 같은 글을 읽고도 생각은 각양각색일 수 있음에 큰 즐거움을 느낀 바 있다. 이렇듯 기사란 생각의 싹을 틔우는 힘을 가진다. 기자란 이러한 힘을 세상에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다. 다양한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글을 작성하는 데 적극적인 내가 되고 싶다. 누군가의 세계가 창조되는 시작이 되고 싶다. 그런 '책'이 될 수 있는 기자를 꿈꾼다. 오늘도 책을 읽는다.



명나디 기자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책 '쇼코의 미소'를 읽고]
사랑의 회복을 위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당연한 사실을 잊는다. 최은영 작가의 소설 '쇼코의 미소'는 한국인 '소유'와 일본인 '쇼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간 다른 사람들과 맺어왔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쇼코가 소유의 집에서 일주일 간 머물며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다. 쇼코의 등장으로 소유의 집엔 활력이 돈다. 쇼코가 오기 전까지 소유의 할아버지와 엄마는 밥을 먹을 때조차도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쇼코가 나타나자 집안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바뀐다.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소유의 할아버지는 쇼코와 많은 대화를 나눈다. 애정표현에 익숙하지 않던 소유의 엄마 역시 활기있는 나날을 보낸다. 쇼코는 일본에 돌아가서도 소유와 소유의 할아버지에게 정기적으로 편지를 보냈지만 쇼코가 대학에 입학하며 더 이상 소유네 가족에게 편지가 오지 않는다. 쇼코의 편지가 끊겼을 때부터 소유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고 잊히지 않길 바라는 정신적 허영심을 자각한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쇼코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이길 원했다는 걸 깨닫는다.

소유는 멀리 있는 쇼코에게 의미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했다. 이렇게 누군가의 사랑을 원하면서도 그는 가까운 가족인 할아버지와는 서로 사랑을 주고 받지 않는다. 쇼코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소유의 욕구는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충족되지 못한 사랑을 멀리 있는 사람에게 바라는 일종의 결핍일지도 모른다. 소유가 쇼코에게 바란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길 바란다. 누군가에게 의미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는 결국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미있는 존재로 남기 위해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한다.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원하고 주려하진 않는다. 하지만 사실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 의미가 더 커지며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때 그 사랑은 배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의미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봐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서로 사랑과 정을 나누는 데에 인색한 모습이 자주 보인다. 남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는 개인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정을 덜 주는 사람이 관계의 우위를 차지한단 사고가 만연하다. 이 분위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로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마음을 내어줘 우리 사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길 바란다.

김예주 기자 05yejoo@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굿 윌 헌팅'을 보고]
당신의 위로가 보이지 않는 상처를 치유한다

영화감독 '구스 반 산트(Gus Van Sant)'가 연출한 영화 '굿 윌 헌팅(Good Will Hunting)'은 어릴 적 △입양△파양△양부의 학대로 인해 상처를 입고 마음을 닫은 채 살아가는 천재 '윌 헌팅'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이다.

세 번의 입양과 지속적인 양부모의 학대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20살 청년 '윌 헌팅(이하 윌)'은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청소부로 일한다. 어느 날 윌은 수학 교수 '제랄드'가 강의실 칠판에 적어놓은 난해한 수학 문제를 풀어낸다. 제랄드는 그 문제를 푼 학생을 찾으려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얼마 뒤 다시 복도 칠판에 문제를 적어놓은 제랄드는 윌이 그 문제를 푸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후 윌은 어릴 적 자신을 괴롭힌 친구와 싸우다 경찰 폭행죄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이를 알게 된 제랄드는 윌이 정기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그의 벌금을 대신 내준다. 제랄드와 함께 공부하게 된 윌은 상담을 위해 심리학 교수 '숀'을 만난다. 윌은 숀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간다. 한편 윌의 여자친구 '스카일리'는 스탠포드 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돼 윌에게 함께 떠날 것을 요구하지만 그는 여자친구에게 받을 상처가 두려워 거절한다. 이후 숀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보듬은 윌이 스카일리가 있는 캘리포니아로 떠나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겐 고민과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누구나 상처를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윌처럼 상처로 인해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숨어있을지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숀처럼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필요가 있다. 이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세상에 나설 용기를 얻게 된다면 그가 성장함은 물론 세상도 더 밝게 변할 것이다.

지난 2011년부터 한강 교량 20곳에 설치된 75대의 상담 전화기 'SOS 생명의전화'는 상담과 구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금까지 9,050명의 자살위기자를 구했다. 이렇듯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와 공감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이 되기도 한다.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용기를 심어주는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

정원준 기자 05wonjun@hufs.ac.kr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22년도 2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활동내역** **2022**년 2학기 **외대학보 1070~1075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 (총 5회, 개인 당 2회)
◆**모집단위** 서울캠퍼스 3명/ 글로벌캠퍼스 3명
◆**모집기간** **8월 30일(화)~9월 16일(금)**까지
◆**지원방법** 문자메시지 혹은 외대학보 페이스북 메시지로 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 제출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학교 구성원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독자위원회 토론 시 경비 지원
◆**문 의** 서울캠퍼스 김상연 기자 010-2731-8669 / 글로벌캠퍼스 지명원 기자 010-9149-3869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젊고 안전한 캠퍼스 생활을 위하여

무더운 여름이 지나 가을이 찾아오려 하고 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건 곧 새 학기가 시작된단 뜻이다. 우리학교는 가을을 맞는 한편 새 학기를 맞이하느라고 분주한 상태다. 이번 학기는 수강생 수에 따라 부분적으로 대면 수업을 진행하던 지난 학기와 달리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학기이다. 캠퍼스는 벌써 활기를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다. 대면 수업을 위해 먼 타국에서 한국까지 찾아온 유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하는 모습이 보이는 한편 모니터로만 볼 수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 우리학교 인근으로 다시 모여들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삭막했던 지난 2년간의 캠퍼스가 다시 젊음이 가득한 공간으로 회복되길 소망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오랜만에 다수의 학생들이 캠퍼스에 모여들 거라 생각하니 혹여나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부 대면 수업을 처음으로 진행했던 지난 학기엔 교내 음주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학생과 미화원이 생겨났다. 대부분의 강의가 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학기에도 교내 음주 문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난 학기보다도 훨씬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건전한 교내 음주 문화를 위해 학생과 학교 측이 모두 노력할 때다.

이번 여름 발생했던 폭우로 인해 캠퍼스에 들이닥친 피해 역시 만만치 않았다. 서울캠퍼스 지하실 내부에 물이 고였고, 산 주변에 위치한 글로벌캠퍼스 역시 침수 피해와 더불어 일부 시설물이 훼손됐다. 학교 측에선 매번 폭우 대응에 힘쓰고 있지만 기상이변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요즘, 우리의 예상을 넘어선 재해가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른다. 특히 이번과 달리 학기 중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설 대비와 더불어 재난 발생 시의 행동 요령 및 지침이 확실하게 구비되길 기대한다.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는 그 정도가 매우 커 중부권 내에서 재산·인명 피해가 속출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반지하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저소득층 혹은 대학생들이 많이 입주하는 반지하가 침수 피해를 입자 반지하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잔 목소리가 우리 사회 내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말한 "반지하는 없어져야 될 주거환경이다"는 발언이 심금을 울린다. 반지하를 근시일 내에 전부 철거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이지만 점진적으로 거주 환경 및 관련 법을 개정해 경제적 여유로 인해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대학교가 다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창궐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다고 해서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니다. 또한 갑작스레 캠퍼스 내에 불어닥친 뜨거운 젊음의 기운이 올바르게 제어되지 못하고 과열되면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다. 우리학교가 활기차고 안전한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젊음을 즐기는 동시에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길 기대한다.

장래산 편집장 03raesan@hufs.ac.kr

2022년도 2학기 동안 외대학보에 만평을 그려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HUFS PRESS

2022년 2학기 동안 학보를 읽고 우리학교 사회의 현실을
예리하게 그려주실 학생 화백을 모집합니다.

◆**활동내역** 2022 2학기 외대학보 1071호~1073호를 읽고 만평 제작 (총 3회, 개인당 1회)

◆**모집단위** 학부생 3명 (서울/글로벌캠퍼스 소속 상관없음)

◆**모집기간** 8월 30일(화)~9월 16일(금)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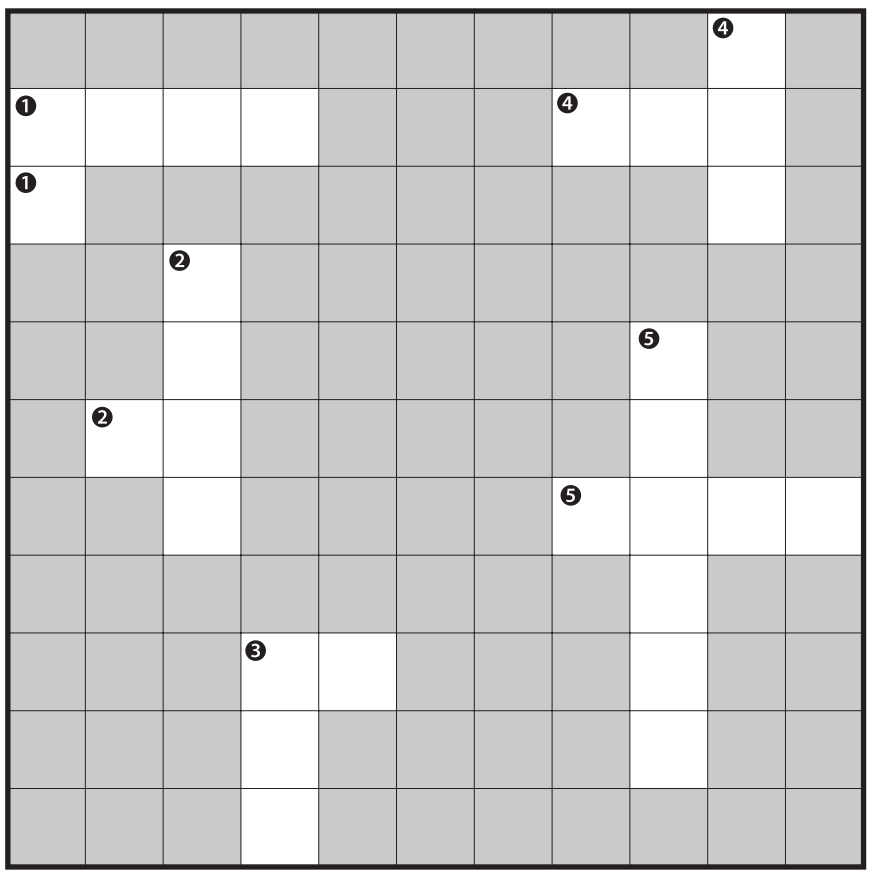
◆**지원방법** 03raesan@hufs.ac.kr 이메일로
1) 이름, 캠퍼스, 학과, 학번과
2) 외대학보 1070호를 읽고 해당 호에 실린 기획/심층 기사 주제에 관해 그려낸 한 컷의 만평 제출

◆**지원자격** 우리학교 내 사안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그림으로 예리하게 그려내고자 하는 외대학보 독자

◆**활동혜택** 만평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문의** 장래산 편집장 010-6490-1044

십자말풀이



가로

1. 계명문화대학교의 캠퍼스 절주 동아리 '헬스 플러스(Health Plus)'는 대학구성원들의 책임 있는 ○○○○실천 및 확산과 대학 내 음주폐해예방 및 음주규제정책 지지를 목적으로 건전 음주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5면 참조)
2. 이 행사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은 지난 행사의 오프닝 ○○에 특수외국어 자막 번역을 지원했다. (2면 참조)
3. 글캠은 지난해 폭우 이후에 용인시로부터 건물 주변 산마루 녹지작업과 사방댐 설치비를 지원받아 설치했고 교내 배수로 ○○도 완료했다. (4면 참조)
4. 이 강사는 업계 최초로 수능 영어 ○○○인 '주간 KISS(Keep It Short and Simple)'를 제작해 배포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12면 참조)
5. 출국 당시 우리나라는 1월이었기 때문에 ○○○○의 기후가 훨씬 덥게 느껴졌다. (6면 참조)

세로

1. 책과 ○○이 모두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감상이 시작된다. (10면 참조)
2. 이문 스프링 사업단의 경우 '이문일공칠 ○○○○'을 필두로 아직 출판업 분야에만 큰 비중을 두고 있다. (7면 참조)
3. 이에 지난달 31일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엔 성별에 따른 수강 자격의 ○○○을 논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3면 참조)
4. 상당수의 사람이 거주 중이기에 일상에서의 안전이 확보돼야 함에도 ○○○는 여러 위험에 노출돼있다. (8면 참조)
5. ○○○○○○교육 과목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경험 인증제 선수과목으로 각 학기당 3학점으로 구성된다. (1면 참조)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세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교육의 첫째 의무를 다시 생각하며

팬데믹이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개강을 앞둔 학교는 활기차다. 지난 몇 년 각자의 고립된 자리에서 견뎌낸 불안과 불확실성 대신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뭔가를 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지난 학기에 이어 더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리라. 뜸했던 동아리 모임도 시작되고 빈자리 많던 도서관도 학생들로 빼곡하다. 때마침 푸른 가을하늘에 구름이 예쁜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새로운 시작은 늘 고마운 일.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한 걸음 나아가는 일이 기적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 본다.

이쯤에서 우리 각자가 학교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물어보자. 학부생은 학부생대로, 대학원생은 대학원생대로, 교직원은 교직원대로, 대학이라는 터에 함께 깃들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대학의 의미를 물어본다면 저마다 어떤 대답을 할까.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우리는 이 귀한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있는가.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하는가.

대학은 한 국가의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기관이다. '교육教育하다'는 우리말 사전에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다'로 정의되고 있는데, 영어 'to educate'의 라틴어 어원 'educere/educare'를 보면 'bring out, rear, lead out, lead forth'로 뭔가를 끄집어내어 길러준다는 의미가 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재된 것을 발굴하여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교육의 첫째 의무인 이유다.

오늘날 대학의 역할을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공급하는 정도로 축소하여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하고 학생 또한 기업체의 일꾼으로 쉽게 대상화되는 시절에 교육의 첫째 의무를 기본에서 생각하는 것은 여러모로 중요하다. 사회에서 요청되는 인재는 쉽게 가시화되는 수치적 측면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에 뭔가를 만들어나갈 잠재성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교육철학의 관점에서, 산업인재 양산을 위한 수동적인 기관으로 대학을 보는 것은 교육의 의미를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는 격이 되기 쉽다. 그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회의 변화를 추동해 나갈 씨앗을 심는 공간으로 대학을 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이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지가 더 자명해진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겹의 위기 담론에 둘러싸여 있다. 기후위기는 최근 들어 생존 자체에 대한 위기감을 실감하게 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가파르게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도 정말 심각한 문제다. 팬데믹, 식량위기 등도 국가별, 지역별 불평등을 더 여실히 보여준다. 박탈당한 자들이 더 가파르게 생존의 절벽으로 내몰려 죽어나가는 현실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민주사회의 이상은 점점 멀어진다.

그러한 때 대학은 다양한 위기 담론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대안공간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폭거로 인해 문화적 다양성이 위축되고 인권이 제한되던 시절, 대학을 중심으로 진보적인 가치를 내세우는 연구소들이 많이 생겨났다. 대학이 진보 담론을 활달히 구축해 나간 과정은 학문과 교육이 정치적 폭압에 굴복하지 않은 좋은 사례를 보여준다. 정치 영역에서 권위주의가 커질 때 대학은 공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을 공부로 연결하여 사회의 위기에 답을 주는 공간으로 성장한 것이다.

대학을 산업인재 양산을 위한 기관으로 그 역할을 좁히지 말고 이 세계의 모순과 위기들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실천적으로 시험하는 공간으로 다시 바라볼 때,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이 교육의 첫째 의무, 즉 잠재력을 끌어내어 미래의 가치를 앞당겨 실현하는 공간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대학은 많이 위축되어 있다. 대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재정위기도 문제고, 연구윤리와 학문의 투명성을 둘러싼 문제들이 대학의 낯을 어둡게 만든다. 최후의 지식인이니 최후의 대학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이러한 위기 담론 속에서 그 구성원인 우리도 잠재력을 끌어내는 공간으로서 대학의 가치와 의무를 잊고 위축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볼 일이다. 우리 안의 소외된 이들을 계속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강의실, 사무실, 동아리방에서, 하루의 일상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가능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그 노력들로 새 학기를 새롭게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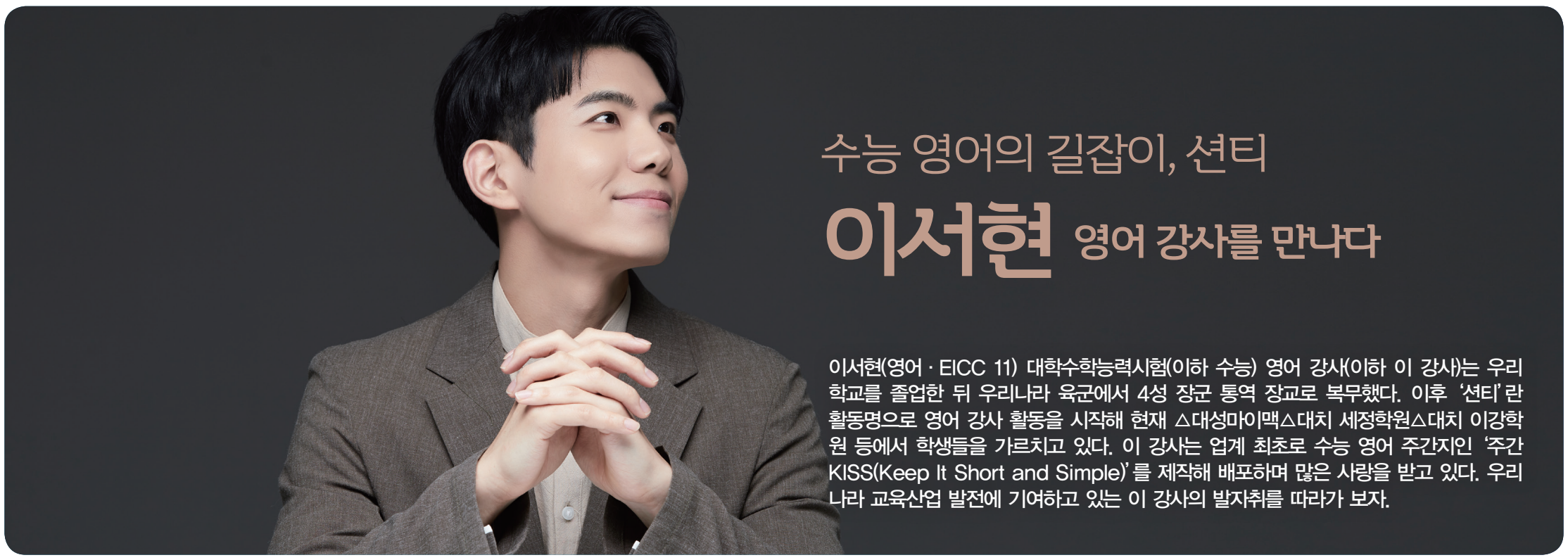
·정은귀(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3raesan@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정은귀
편집장 장래산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수능 영어의 길잡이, 션티
이서현 영어 강사를 만나다

이서현(영어 · EICC 11)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영어 강사(이하 이 강사)는 우리 학교를 졸업한 뒤 우리나라 육군에서 4성 장군 통역 장교로 복무했다. 이후 '션티'란 활동명으로 영어 강사 활동을 시작해 현재 △대성마이맥△대치 세정학원△대치 이강학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 강사는 업계 최초로 수능 영어 주간지인 '주간 KISS(Keep It Short and Simple)'를 제작해 배포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 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자.

Q1. 우리학교 EICC학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삼수 후 4년 장학생이 될 수 있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우리학교 EICC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이십대 초반엔 진로를 확정 짓지 못했어요. 하지만 영어를 잘하는 게 어떤 직업을 가지든 큰 도움이 되겠단 생각에 우리학교에 입학했습니다.

Q2. 대학 시절 경험했던 인상 깊은 활동이 있나요?

대학교 1·2학년 때 우리학교 모의국제연합 '하이문(HIMUN)'에서 사무국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신입생 땐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겠단 열정이 매우 강했어요. 입학 후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에게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동아리를 물어봤더니 하이문을 알려줘서 지원하게 됐죠. 홍보팀장을 하며 주로 동아리 외부 인력 섭외를 맡았습니다. 동아리 부원들과는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해 지금도 종종 연락하고 있어요.

Q3. 우리나라 육군에서 통역 장교로 복무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우리학교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많은 걸로 유명한 학교이다 보니 이와 관련된 진로를 알아봤어요. 그때 통역 장교란 직업을 알게 됐습니다. 양국 사이에서 통역을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명문대학교 출신에 영어 실력이 뛰어난 인재들이 제복을 입고 긴 문장을 통역하는 모습이 저에겐 동경의 대상이었죠. 해외에 나간 적 없는 국내파로서 통역 장교가 되면 멋있겠단 생각에 신입생 때부터 통역 장교를 목표로 삼고 준비했습니다.

Q3-1. 통역 장교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소위 1년 차일 때 2주 동안 포항에서 미군과 함께 'FTX(Field Training Exercise)'란 야외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통·번역을 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고생스러웠지만 전우애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4성 장군의 통역을 전담했던 경험도 인상 깊었어요. 4성 장군 사령관이 미군 부대를 사찰하다가 불량한 청소 상태에 대해 "청소를 주의 깊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청소 상태가 불량하단 말을 어설프단 뜻의 'clumsy'란 단어로 통역했죠. 이 단어에 대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역을 할 땐 직역보다 의역이 더 필요한 순간이 있단 조언을 받았습니다.

Q4. 영어 강사란 직업을 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대학교를 다닐 때까진 제가 영어 강사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생계를 위해 영어 과외를 꾸준히 했지만 이를 직업과 연관지어 생각하진 않았죠. 과외 학생들을 위해 만든 'KISS EBS'란 자료를 수험생 사이트인 '오르비(Orbi)'에 올렸는데 이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때 제가 자료 만드는 일에 재능이 있단 걸 느꼈어요. 군대를 전역한 후 직장인의 길과 프리랜서 강사의 길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할 때 제가 살아있단 느낌을 받았고 수능 자료를 만드는 것과 같이 혼자 하는 작업이 내향적인 제게 잘 맞는단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많은 위험이 있더라도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직업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영어 강사로 활동하는 게 더 좋겠단 결론을 내렸어요.

Q5. 주간 KISS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엔 'KISS EBS'란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엔 수능의 영어영역에 EBS와 직접 연계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몇 년간 이 상표를 시장에 내세웠어요. 하지만 최근 수능 영어에서 EBS의 수능특강 출제 방식이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바뀌었습니다. 수능 출제 방식의 변화에 맞춰 상표를 달리하는 전략이 홍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영어를 공부할 때 주간지를 통해 매일 공부량을 정해주는 게 학생에게 효과적일 거라 생각했죠. 이에 유명 국어 모 주간지를 참고해 KISS EBS에서 '주간 KISS'로 상표명을 바꿨습니다. 'KISS(Keep It Short and Simple)'란 말은 제가 우리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시절 원어민 교수님이 글쓰기 수업에서 글을 간결하게 쓰란 의미로 자주 적어주던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멋지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상표로 쓸 때도 눈에 띄어 제 주간지 상표명에 쓰기로 결심했어요.

Q6. 강의를 하며 보람을 느꼈던 일화가 있나요?

학생들이 좋은 후기를 남겨줄 때 감사함을 느껴요. 제 덕분에 영어가 재밌단 후기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사실 공부를 하며 재미를 느끼긴 어렵죠. 특히 영어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암기량이 많아 학생들이 기피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후기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 대학 입학 후 연락이 닿아 제 조교로 활동하는 모습을 볼 때도 보람을 느낍니다.

Q7. 강사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수능 영어가 기초 실력보다 성실함이 더 중요한 과목이란 걸 널리 알리는 게 제 목표에요. 보통 해외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영어를 잘한단 인식이 있어요. 일반적인 영어에선 그렇지만 수능 영어는 다양한 영어 표현을 요하는 회화와 달리 단순 독해이기 때문에 노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영어가 수능 국어와 수능 수학에 비해 요구하는 사고의 수준이 비교적 낮기에 성실한 친구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과목이란 점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Q7-1. 인생의 추구하는 가치 혹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제가 추구하는 인생의 세 가지 가치가 △사랑△죽음△행동이에요. 사랑은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며 살자'는 의미입니다. 죽음은 스티브 잡스의 연설에서 영감을 받아 제가 20대부터 계속 고민해 온 가치예요.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죽음을 생각하며 모든 선택을 내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마지막으로 행동은 지금 이 순간에 최대한 집중해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다음 가능성도 계속 열린다는 의미예요.

Q8. 강사의 꿈을 가진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강사에겐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로서 강사가 지녀야 할 요소엔 △강의력△집필력△매력이 있죠. 가수나 연기자와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단상에서 카메라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다 보니 강의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최근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학생들의 눈에 잘 들어오게 자료를 구성하는 집필력이 중요해요. 영어 교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양질의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직업이기에 △외적인 부분△재미△카리스마와 같은 매력을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강의력△집필력△매력 중 자신이 무엇에 강점이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많이 고민해보고 발전시키면 성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수빈 기자 05subin@hufs.ac.kr